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입니다. 꼭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를 위해 고난 받고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묵상해 보셨나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누려 보셨는지요?

마가복음 8:34 (NKRV)

³⁴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셨는지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12 (NKRV)

¹²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셨잖아요? 마가가 제시하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선택하자입니다. 아. 쉽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을까? 망설여져요.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까요? 내적인 외적인 공격이 참 많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저의 약점인 ‘열등감’을 통해서 왔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 제 열등감을 건드리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찌르면 너무 너무 아픈 거. 사탄이 효과가 있는 걸 눈치 챘는지 여러 루트로 거짓을 속삭였습니다. 거짓인지 아는데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며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한숨과 낙심이 뼈를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모임때는 웃으면서 공과를 설명하고, 유년부 예배때 웃으며 찬양하고, 어제는 “공부를 해서 뭐 하나?” 속이는 마음과 싸우며 수업에 하루종일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강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것이 저를 부인하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겠다.” 이를 꼭 물고 시간과 분과 초를 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니 토요일 경시를 하며 큰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큰 꿈을 꾸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보겠습니다.” 결단한 후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대로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도 준비한 누가복음의 내용대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1. 들어가는 말

누가복음은 세 개의 다른 복음서들처럼(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다루는 기사에 있어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탄생 예언, 탄생, 세례, 시험, 사역(말씀과 이적을 통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가 선택한 제자들과 함께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것은 누가복음은 무엇보다 그 후편인 사도행전을 전제로 한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전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도행전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누가복음을 접근해야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유기적 관계성으로 인해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특히 1920년대 H.J. Cadbury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학자들의 논문들을 통해 두 문서를 “누가-행전”(Luke-Acts)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주는 메시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슷한 점, 다른 점들을 비교하며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가복음을 그 텍스트 안에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자

19세기 중반까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Luke)라는 것이 폭넓게 지지를 받았습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비평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저자로 수용되었던 누가를 의문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평적 견해들이라고 해서 전통적 입장보다 결코 더 역사적이거나 학문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외적 증거

복음서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입장은 무엇보다 일찍부터 초대교회 안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라토리안 신약정경(170-180년 - 누가복음의 저자를 의사이면서 선교여행의 동반자로 소개), 이레니우스(185년경의 *Against Heresies*[이단에 대항하여] 3.1.1. 및 3.1.4.1.), 터툴리안(208년경의 *Against Marcion*[반-마르시온] 4.2.2., 4.2.5., 4.5.3.) 그리고 그 이후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유세비우스 및 다른 초대교회 교부들은 한결같이 누가를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적 증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프로그램으로 검색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진짜 안 나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내적 증거는 무엇일까요? 소위 “우리-본문”(we-passages)라고 불리는 곳에서 저자는 바울의 사역 중에 발생한 사건들을 묘사할 때 1인칭 복수형태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10-17, 20:5-15, 21:11-18, 27:1-28:16.

사도행전 16:10-17 (NKRIV)

¹⁰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¹¹**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¹²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¹³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¹⁴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¹⁵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¹⁶**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¹⁷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또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의 여러 여행 중에 그와 함께 동행했던 대표적인 동료들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4:14 (NKRIV)

¹⁴**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11 (NKRIV)

¹¹**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 24 (NKRIV)

²⁴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가 비록 사도행전에서 이름이 언급된 적은 없지만 위의 모든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절을 보면 저자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예수와 함께 했던 사도들과 그 직후의 제자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1-4은 헬라식 역사서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4 (NKRIV)

¹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²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³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⁴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누가-행전 전반의 헬라어 문체의 화려함을 통해 저자가 높은 교육을 받은 지식인(내과의사, 이아트로스, physician – 골 4:14)이라는 점과 함께, 비록 그가 규약과 유대교 지식에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복음서 저자 가운데 유일한 비 유대인으로 추정 받고 있습

니다. 19세기 말에 호바르트(W. K. Hobart)는 누가복음-사도행전에 나타난 독특한 의학용어들이 저자가 누구인 것을 밝혀준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20세기 초에 캐드버리(H. J. Cadbury)는 이런 용어들은 비의학적인 저자들 가운데서도 빈번히 사용된 단어임을 입증했습니다. 캐드버리의 입장은 누가의 의사가 아님을 주장한 것이기 보다는 누가문서의 언어만 가지고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 확정지을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 누가가 저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가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실제로 언급되는 것은 바울에 의해 세 번 정도인데요. 만약 누군가 복음서의 권위를 갖추려고 했으면 굳이 '누가'를 저자로 할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 기록 시기와 장소 및 목적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사도행전)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 약 80-90년대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70년 이전(60년대)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여전히 하나의 학문전 견해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집필 시기에 대한 논쟁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언급이 "멸망 후냐" 아니면 "멸망 전의 예언"이냐로 갈라집니다. 또한 마가복음 기록 연대에 대한 이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은 학자들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작성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65년 경에 쓰여졌다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반 마르시온 서문에 보면 누가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지만 아가야에서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아가야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 누가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로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장소로 안디옥, 가이사랴, 로마, 아가야, 소아시아 등이 거론 됐는데요. 기록 장소의 불확실성에 대해 피츠마이어는 누가복음(-사도행전)의 기록 장소는 누구나 추정해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팔레스타인 밖에서 기록됐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사도행전)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을까요? 누가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1:4). 누가는 데오빌로와 그와 같은 다른 회심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궁극적 의미를 확신하기를 바랐습니다. 데오빌로는 복음을 단편적으로만 듣고 아직 믿음의 길에 서지 못했거나 믿음의 길에는 들어섰지만 그가 들은 많은 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과 복음의 진전을 사실대로 차례로 써 보냄으로 그가 들었던 것이 확실함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하워드 마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와 확장을 보여주기 위해 누가복음(-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구조"를 설명할 때 왜 마샬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4. 구조

누가가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써 보냈다고 해서 모든 기록인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게는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순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누가도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필요한 대로 주제별로 정리한 듯 보입니다.

누가복음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복음이 어디에서 발생하여 어디까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지역성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구조적 틀을 암시해 주는 구절이 있죠? 어디일까요? 네. 사도행전 1:8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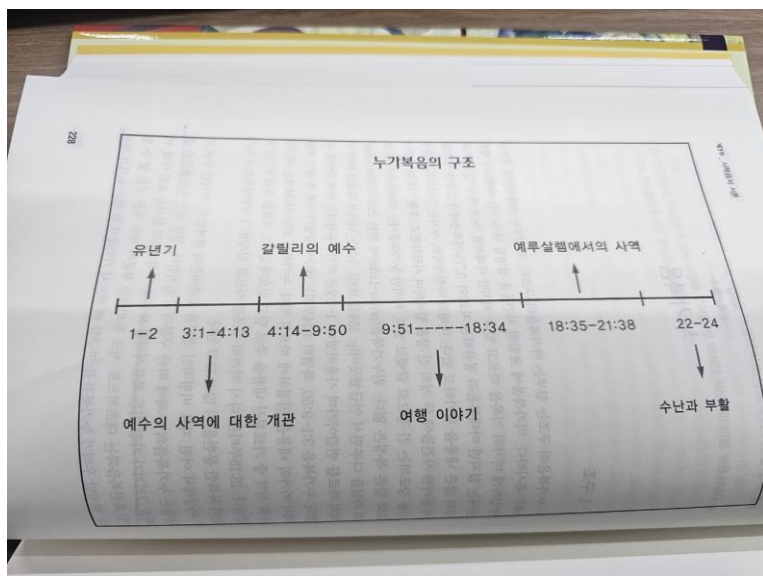
사도행전 1:8 (NKRV)

⁸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은 사도행전 내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마쳐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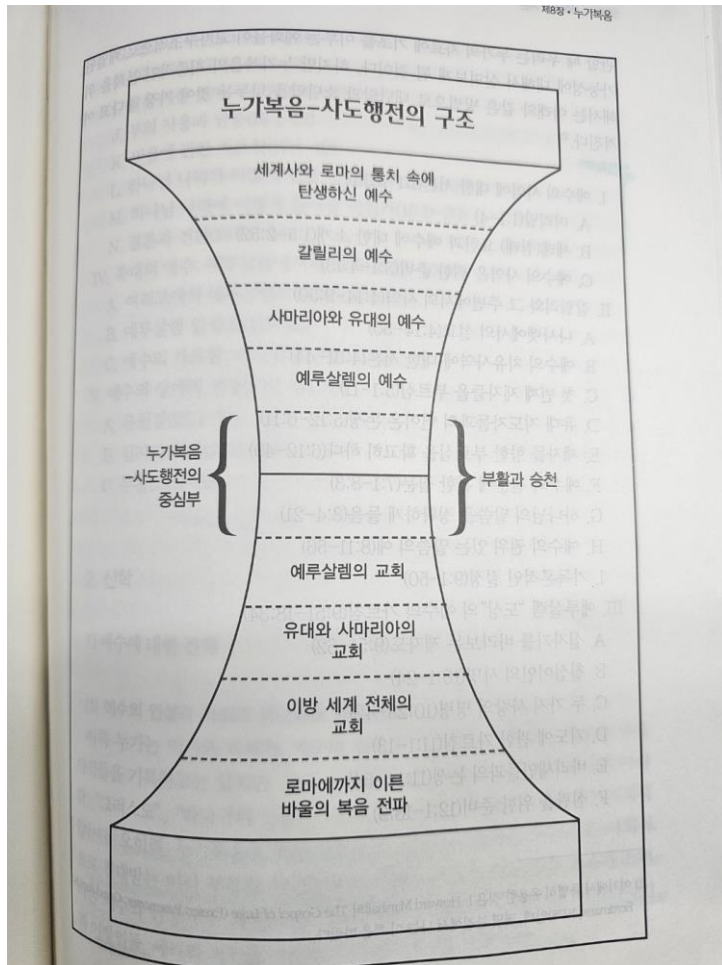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내의 교회를 묘사하고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는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8-1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부근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특별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새롭게 회심한 사울(바울)의 사역이 수리아 안디옥,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13-28장).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매우 배타적이었던 유대의 한 종파가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전개는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누가-행전은 연결되는 하나의 내러티브로 보아야 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 누가가 고의로 이렇게 배치해 놓았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3:1-9:50까지를 보면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있었던 사건들만을 다룹니다. 그 이후에는 "여행 이야기"가 나오고(9:51-18:34) 18:35-21:38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나옵니다. 22-24장은 수난과 부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나타나신 것만 언급해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중복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가 예수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교차 구조적으로 (Chiastically) 두 권으로 나누어 기록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누가복음은 로마 역사와 통치의 맥락 속에서 예수의 출생과 더불어 시작하며, 이어서 예수가 갈릴리로부터 출발하여 사마리아와 유대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따라감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바깥으로 진행됩니다. 사마리아를 넘어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소아시아 모든 지역,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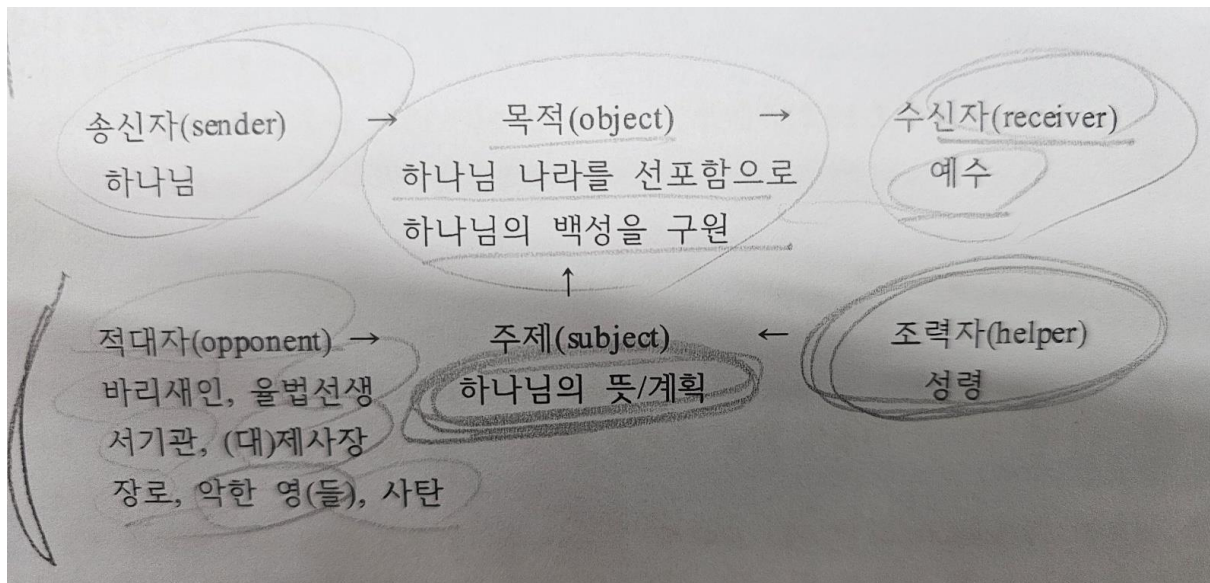


여기 교차 대칭 구조를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어? “갈릴리의 예수”와 “이방 세계 전체의 교회”가 안 일치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구약 후기부터 갈릴리는 자주 “이방의 갈릴리”로 소개 되었고요(사 9:1; 마 4:15), 예수 시대에도 그 인구나 문화에서 유대 땅보다 덜 유대적이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차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중심부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심부는 무엇입니까? 네! 부활과 승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시작 부분 두 번에 걸쳐 묘사되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시작할 때 전편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죠. “부활과 승천”이 누가에게 기독교 선포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초대교회 설교자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고난과 죽음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활을 선포했는데, 이 부활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예를 들면, 행 2:24-36; 13:30-37; 17:18; 23:6)

이렇게 볼 때, 누가-행전의 줄거리는 “예수와 그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의 능력과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찾아나서는 증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만 좁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찾

아나서는 증인의 길"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줄거리를 프랑스 기호학자 그레이마스(A. J. Greimas)의 내러티브 문법적 구조에 적용 시키면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성령께서는 헬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반대세력 즉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 악한 영들, 사탄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괴롭힙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면 예수님과 성령은 송신자가 되셔서 삼위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게 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계획인 거죠. 거기에는 당연히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적대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대자들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적대자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야곱에게는 삼촌 라반이 그를 찌르는 가시였죠. 하지만 라반 밑에서 개고생을 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어 라반을 떠나오죠. 요셉은 어떤가요? 형들이 죽일려고 하잖아요? 깊은 구덩이에 던져 버리고. 결국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했나요? 겨우 인정을 받아 이제 좀 편해지나 했더니 감옥에 던져져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시편 105:17-18 (NKRIV)

¹⁷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¹⁸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년 넘게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 13년을 고난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죠?

창세기 50:20 (NKRV)

²⁰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이집트에서 13년 동안 노예로 또 죄수로 지낸 이유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적대자였던 형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적대자들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방해와 핍박과 고난과 눈물을 뿌리게 하는 적대자들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재료로 사용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 누가복음의 목회신학적 틀

5.1. 목회적 관심

다른 복음서들 뿐 아니라 신약성경의 서신들과 비교할 때에도 누가복음에는 기독교적 보편주의(Christian universalism) 내지 기독교적 인도주의(Christian humanism)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내지 소외된 자는 누가신학의 '잃어버린 자'의 중심을 차지합니다(19:10; 15장 참조). 이것은 누가신학에서 나타나는 반전(reversal)의 주제(1:51-53; 13:30; 14:11; 17:33; 18:9-14 참조)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4:16-27)중 이사야서 61장 1-2절이 예수께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메시아 사역이 '가난한 자'/'포로된 자'/'눈 먼 자'/'눌린 자'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자유-해방-구원의 사역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1-2 (NKRV)

¹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²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만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죠.

누가복음 6:20 (NKRV)

²⁰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소외된 모든 탕자(즉, 문자적으로 '부자'도 포함)들을 지향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세리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가 복음의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병자들’과 다름 없습니다.

누가복음 5:31-32 (NKRV)

³¹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³²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가난한 자/잃어버린 자’는 누가복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세리와 죄인(5:30; 7:34; 15:1), 여자,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를 통해 팔레스타인 안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 팔레스타인과 그 너머 이방 지역 땅 끝까지 이르러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딱 보면 어때요? 대부분이 여성이시죠. 형제분들은 거의 열 두 제자급만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 1세기 여성에 대한 종교사회적 권익이 매우 열악했던 것을 고려할 때 여성에 대한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입장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이죠. 복음서 초두(1-2장)를 보면 누가 나오죠?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의 찬미와 증거는 누가-행전의 주요한 모티프를 제공해 줍니다. 사렙다 과부(4:26), 나인 성 과부(7:11), 마리아와 마르다(10:38), 가난한 과부(21:1-4), 부활을 증언하는 여인들(24:5, 10)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 자기들의 소유를 아끼지 않은 자들은 그 당시 주요 노동자였던 남성들이 아니라 여인들(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만 소개되고 있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2. 신학적 주제

5.2.1. 성령

누가복음(-사도행전)은 바울서신 및 요한문서와 함께 신약의 성령 이해에 지대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누가의 성령 이해에 대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보다 누가의 성령이 유대교에서 주도적으로 이해한 ‘예언의 영’(the Spirit of prophecy)이라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성령과 연관된 인물(세레 요한,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들이 직간접적으로 메시아 예수를 증언합니다. 3장 이후부터 성령은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준하고 예수께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예수의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증언되는데 결정적 동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0:38 (NKRV)

³⁸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한 편 누가복음은 예수의 제자들이 장래에 감당하게 될 증인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이 능력과 지

혜를 베풀 것을 약속한다(11:13; 12:10, 12).¹ 이것은 예수의 부활 이후 및 승천 직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당부에서 더욱 확증된다. “볼지어다 내[예수]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24:49); “...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예수]께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예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4; 5, 8).

5.2.2. 제자의 삶

(1) 기도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서 기도에 대한 자료가 가장 풍성합니다.²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중요한 문맥에서 기도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의 첫 장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며(사도행전의 첫 장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은 승천하시는 예수의 축복기도로 종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인물화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 중 성령이 예수의 기도 중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3:21).

누가복음 3:21 (NKRIV)

²¹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의 피곤함 속에서도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 하시는 분으로(눅 5:16),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6:12) 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밤새 철야기도를 하신 후에 열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고백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따로 기도”중이셨습니다(9:18-20).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시죠. 그 때도 기도하실 때였습니다(9:28-29). 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별세(ἑξοδος) [deparure]를 선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35절). 칠십 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한 자신들의 성공적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찬양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10:17-22).

한편,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마치신 후의 일입니다(11:1-4).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낙심할 수 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당부하시기도

¹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마태복음의 병행구절 7장 11절에서 사용된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언급한다 –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² ‘기도’ 또는 ‘기도하다’라는 용어가 마가복음에 13번, 마태복음에 17번, 누가복음에는 21번 나타난다(참조, 사도행전에는 25번).

하셨습니다(18:1-8).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서는 감람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22:39-46).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처절한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은 원수들(23:34)과 자신(23:46)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 증거와 함께 고별설교를 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기점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에 비해 유대인들(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은 기도의 실패자로 인물화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니 정작 기도하는 자리에서 졸고 있습니다(22:44-45). **그러나 예수의 부활과 승천 후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첫 변화는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행 1:12-14).**

사도행전 1:12-14 (NKRV)

¹²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¹³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¹⁴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 예수의 제자들은 살아생전 보여주었던 예수의 모범을 따라 '기도의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임을 여실히 증언해 줍니다(행 2:42; 3:1; 4:24이하; 6:4, 6; 8:15; 9:11, 40; 10:9, 30; 11:5; 12:12; 13:3; 14:23; 16:25; 20:36; 21:5; 22:17; 28:8).

(2) 재물포기와 구제

누가복음(-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주제는 재물에 대한 저자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오늘의 제자들 역시 반드시 답변해야 할 필연적 질문인데요. "집 하인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16:13).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14:33)고 하였으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부자 관리에게 예수께서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18:22; 이에 대한 부자 관리의 반응이 23절에 언급되어 있다 -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재물 포기는 이웃을 위해 베풀어야 할 구제로 이어집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눠지지 아니

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12:33-34; 참조. 3:11; 6:34-35, 38; 11:41; 14:12-14).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설교 중에 소개된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예수 전승’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제자들의 재물포기와 구제의 삶은(7:5; 8:3; 10:34-35), 앞 단락에서 소개한 기도와 유사하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구원의) 표징과도 같다(행 2:43-37; 4:32-37; [5:1-11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제자답지 못한 삶을 대변해 준다]; 9:36, 39; 10:2, 4, 31; 24:17[참조. 고후 8-9장; 롬 15:25-28]).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포기나 구제가 예수 제자 됨(또는 구원 받음)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에, 제자가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식 또는 열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제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하다면 지체와 나누는 게 아깝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요.